

한국농어촌공사,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업무협약 체결

송덕만 기자 | 승인 2025.04.14 08:35

미래농업혁신 위한 협력...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조성 본격화

[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송덕만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지사장 박승수)는 지난 10일 고흥군, 흥양영농조합법인과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성공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가 고흥군, 흥양영농조합법인과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농어촌공사 고흥지사]

업무협약식에는 한국농어촌공사 박승수 고흥지사장, 공영민 고흥군수, 흥양영농조합법인 김종율대표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흥군청 팔영산홀에서 진행됐다.

업무협약은 고흥관내 20ha 규모의 스마트팜 창업단지의 원활하고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 3자간 협력하기 위함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토지매입 등 기반시설 조성 및 지원 △ 고흥군은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 △흥양영농조합법인은 스마트팜 운영을 통한 청년농 육성 및 지원 등 각 기관별 구체적인 협업을 통해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지원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집단화된 유휴부지를 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정비 매각해 농업법인 청년농 등의 영농규모화 및 첨단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어촌공사 고흥지사는 2024년부터 고흥군 도덕면 가야리 3722번지 일원에 240억원을 투입해 20ha 규모의 스마트팜 농업 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박승수 고흥지사는 "최근들어 높아지고 있는 첨단농업 시설 지원요구에 발맞추어 고흥관내 농업법인과 청년농에게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를 지원하게 되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오늘 협약이 고흥을 스마트 농업의 중심지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스마트팜 창업단지를 통해 지역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미래농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3자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덕만 기자 dm1782@naver.com